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4.18(금) ~ 2025.4.24(목)

제공일시 2025 5 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4.18(금) ~ 2025.4.24(목)

제공일시 2025 5 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글로벌 정책

### 1. EU,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위해 메탄 규제 완화 검토

-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확대를 위해 메탄 배출 규제의 적용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피하고, 에너지를 포함한 양측 간 무역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EU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유럽집행위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조건을 정리 중이며, 미국산 LNG 수입이 EU의 메탄 규제를 충족하도록 기술적 규정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임팩트온 2025.4.23\)](#)

### 2. 美 “최대 3521% 관세” 동남아산 태양광제품 대상… ‘中 겨냥’ 조치

- 미국은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 중국 기업이 동남아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과 셀 등을 덤핑 가격에 수출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판단임
-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이며,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에 달함

[\(서울신문 2025.4.22\)](#)

### 3. 美, 주요 광물 광산 프로젝트 패스트트랙 추진

- 미국이 자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주요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함. 이들 프로젝트는 연방 인프라 승인 간소화 프로그램인 FAST-41 지위를 부여받음
- 패스트트랙 대상에는 △퍼페투아 리소스의 아이다호 안티몬·금광 △리오 틴토의 애리조나 구리광 △헤클라 마이닝의 몬태나 구리·은광 △앨버말의 네바다 리튬 광산 확장 등이 포함됨
- 이번 조치는 미국의 공급망 자립과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됨

[\(더구루 2025.4.21\)](#)

## 국내 정책

### 1. 금융위 “재무 중요도 떨어지는 자회사, ESG 공시서 제외 검토”

- 금융위원회가 2026년 이후 의무화될 지속가능성(ESG) 공시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또, 온실가스 공급망 배출(스코프 3)은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금융위는 2023년 10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후 아직 세부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ESG 공시 속도를 낮추는 주요국 추세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점과 공시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임

[\(와이드경제 2025.4.23\)](#)

### 2. 환경부, 제주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에 국비 91억원 지원

- 제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청정수소를 만드는 사업이 본격 추진됨.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주도와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22일 체결한다고 21일 밝힘
- 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도를 선정하고, 내년(2026년)까지 91억원(총 사업비 130억원의 70%)의 국비를 지원함
- 도는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sup>3</sup>의 바이오가스를 활용, 오는 2027년부터 수소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임

[\(제주도민일보 2025.4.21\)](#)

### 3. 美 ‘관세 폭탄’에 끈끈해지는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공급망 정보 교환

-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 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함
-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전날(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힐 스비어스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과 만나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함
-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임

[\(아시아경제 2025.4.17\)](#)

## 글로벌 기업

### 1. 트럼프發 '자동차 관세 쇼크'... 볼보, 미국 공장서 최대 800명 감원

- 볼보그룹이 미국 내 생산시설에서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함. 볼보그룹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감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볼보그룹 북미법인은 펜실베이니아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세 곳의 생산 시설에서 감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로이터에 따르면, 볼보그룹 북미법인은 550명에서 800명의 직원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감원할 계획임. 이는 북미에서 고용 중인 약 2만 명의 직원 중 최대 4%에 해당하는 규모임

[\(임팩트온 2025.4.22\)](#)

### 2. BP, 기후전환 실패에 '주주 반발'... 주주 24.3%가 회장 연임 반대

- BP의 친환경 전환 전략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에 직면함. 가디언, CNBC 등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간) 열린 BP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약 4분의 1이 헬게 룬드 BP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것으로 보도함
- 이번 주총은 BP의 기후정책을 주도했던 룬드 회장이 내년까지 회사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이후 열렸고, 이 주총에서 룬드 회장은 24.3%의 연임 반대표를 받음. BP가 친환경 전환을 철회한 데 대한 반발임

[\(뉴스트리 2025.4.18\)](#)

### 3. BYD, 日 경차시장에 도전장... 갈라파고스 뛰어넘나

- 중국 전기차(EV) 기업 BYD가 일본 경차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음.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진입 장벽을 쌓아 '갈라파고스 경차(가라케이)'라고 불리는 일본 경차 시장을 BYD가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됨
-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BYD는 일본 경찰 규격에 대응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2026년 후반 출시를 추진 중임. 최저가 수준의 판매를 목표로 중국에서 생산해 일본에 수출하며, 급속 충전기도 일본 독자규격에 맞출 계획임

[\(이데일리 2025.4.22\)](#)

### 4. 탄소배출권 팔아 年4조 벌던 테슬라... 유럽·미국 판매량 급감에 압박

- 테슬라의 '캐시 카우'로 불리던 탄소배출권(일명 탄소크레딧) 거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유럽·미국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규제 당국에서 충분한 탄소배출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 탄소배출규제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연구단체 국제청정운송위원회(ICCT)의 피터 목 유럽총괄책임자는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올해 충분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스텔란티스 등 다른 완성차 업체에 매각하기로 약속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테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

[\(중앙일보 2025.4.17\)](#)

## 국내 기업

### 1. SK오션플랜트, 대만 해상풍력 수주 확대... 핑미아오1 제작 착공

- SK오션플랜트가 대만 핑미아오1(Fengmiao 1) 해상풍력발전단지에 공급할 하부구조물 제작에 착수함
- 이번 프로젝트는 대만 정부가 추진하는 '라운드3'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첫 번째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이 투입됨
- SK오션플랜트는 경남 고성군 소재 야드 내 조립공장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힘
- 이번에 SK오션플랜트가 제작하는 하부구조물은 대만 해상풍력단지에 설치되는 구조물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함. 1기당 최대 높이는 약 97m, 무게는 2700톤에 달함

[\(AP신문 2025.4.23\)](#)

### 2. 현대차, 印 수소생태계 구축 속도... 인도석유공사와 MOU 체결

- 현대자동차가 인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 인도석유공사(Indian Oil Corporation Ltd)와 손잡고 수소차(FCEV) 생태계 구축에 나섬
- 현대차 인도판매법인(HMIL)은 22일(현지시간) 인도석유공사와 수소차 실증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현대차는 수소차 '넥쏘(NEXO)' 1대를 인도석유공사에 전달, 현지 도로환경에서의 장기 주행 테스트에 돌입함

[\(더구루 2025.4.23\)](#)

### 3. 삼성물산, 호주 NSW주에 80MW/320MWh 규모 배터리 저장시설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지난 17일(현지시각) 리뉴어블스나우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호주 자회사는 뉴사우스웨일스 (NSW)주에 최대 80메가와트(MW)/32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BESS) 개발 계획을 제출함
- 이 계획은 호주 연방 정부의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EPBC)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제안됨. 총 13.8헥타르(약 4만1700평) 부지에 조성될 이 시설은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글로벌이코노믹 2025.4.18\)](#)

### 4. LG엔솔-혼다 美 배터리 합작사 속도... 혼다 美 현지화 가속

-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의 미국 배터리 합작사(JV)에 대한 출자를 완납함. 배터리 합작사 투자를 마무리하며 향후 생산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짐
- 양사가 총 44억달러(약 6조3131억원)를 투입해 미국 오하이오주 제퍼슨빌에 세워진 합작공장은 올해 말부터 배터리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아이뉴스 2025.4.18\)](#)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4.18(금) ~ 2025.4.24(목)

제공일시 2025 5 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미 트럼프 행정부, 신규 해상 시추 확대 계획 발표... 북극해 포함

-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 시추 계획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내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의 신규 해상 석유 및 가스 임대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또한 알래스카 해안의 북극해에서 석유 시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만에서만 석유 시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대조적인 행보임

- 그동안 해양 시추 계획은 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통을 겪어왔음.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이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조치를 반복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북극과 대서양 등에서 연안 시추 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

- 하지만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양 생태계와 연안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 멕시코만을 포함한 약 253만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미국 해역 내 신규 해양 석유, 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음. 이는 72년 된 연방 법률인 '외대륙붕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에 기반해 이뤄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음

- 그러나 미 내무부 장관 더그 버검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석유 및 가스 생산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 버검 장관은 "제11차 국가 외대륙붕 프로그램 개발 절차 개시는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확보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음. 이어 "투명하고 포용적인 대중 참여 절차를 통해 책임감 있는 해상 에너지 개발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무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45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음. 다만, 새로운 임대 입찰의 시기나 구체적인 위치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음. 내무부는 북극 및 기타 대륙붕 외곽 지역 등 새로운 해역을 시추 가능 지역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음.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계획된 기존 멕시코만 임대 일정은 지속한다고 밝혔음

- 내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이 지역의 해외 임대를 통한 생산량이 국내 석유 생산량의 약 14%,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의 2%를 차지해 70억달러(약 10억원)의 연방 세수를 창출했음. 또, 외대륙붕은 상당한 양의 미발견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했음. 미 내무부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석유는 평균 687억9000만배럴, 천연가스는 229.03조입방피트로 추정된다고 전했음

-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 석유 협회(API) 업스트림 정책 담당 부사장인 홀리 홉킨스는 "미국의 방대한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하고 연방 임대에 대한 친미적 에너지 접근 방식을 되살리기 위해 조치를 취한 버검 장관과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전했음

- 반면, 해양보호 환경단체인 오셔나(Oceana)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해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음

(임팩트온 2025.4.22)